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D-9

“우리도 함께 뛰다”

남도의 봄을 달리는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의 47번째 질주가 9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의 마라톤 동호회·기관·단체·시민들이 힘찬 질주로 3·1운동의 기상을 높이기 위해 대회 참가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단체팀들을 소개한다.



마라톤으로 건강과 화합을 다지고 있는 한국전력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외치며 3·1 마라톤 질주에 나선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체육회가 광주체육 발전을 위한 힘찬 도약을 다짐하며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출사표를 던졌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기 안전공급 위해 뛰고 또 뛰다”

■ 한전 광주전남본부

회원만 70명, 사업소를 포함한 회원이 200여명이 넘는 광주전남본부의 대표 동호회가 됐다. 10년 동안 3·1절 대회에 참가한 단골 동호회로 이번 대회에도 사업소 직원을 포함해 20여명 회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양대동 회장은 이번 대회 참가를 신뢰와 소통의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동호회원과 함께 달리면서 서로 격려하고 파이팅을 외치면서 목표지점을 향해 달리다보면 자연스럽게 유대감도 깊어지며, 함께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끈끈한 정도 생겨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평소 말하지 못했던 속 깊은 대화도 나누고 서로 지친 일상에 대해 격려도 할 수 있어 ‘함께 알고, 함께 이야기 하고, 함께 일하는’ 동호회로 신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이다. ‘뛰어모’는 ‘고객 매우 만족’을 위해 ‘함께하고, 사랑하고, 건강하고, go(go) go’를 위해 달린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있다고 말하는 이들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과 ‘고객 만족’을 실천하겠다는 각오다. ‘뛰어모’ 회원들은 봄을 활짝 여는 광주일보 3·1절 마라톤대회 참여를 통해 선조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되새기고 겨울동안 다졌던 훈련 성과를 평가하면서 화합을 다지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뛰어모’ 회원들에게 3·1절 전국마라톤 대회는 ‘세상에 빛을, 이웃에 사랑’ 전하는 한전인의 슬로건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우린 시민의 건강 페이스메이커”

■ 광주시체육회

“마라톤을 통해 힘차게 도약하는 광주체육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만들기과 체육진흥에 앞장서고 있는 광주시체육회가 광주일보 3·1절 마라톤대회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새봄의 질주를 통해 진정한 체육인의 정신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광주체육을 책임지고 있는 광주시체육회는 매년 3·1절 마라톤을 통해 봄을 맞이해왔다. 이들에게 3·1마라톤은 한 시즌의 각오를 다지고 건강을 챙기는 특별한 자리다. 체육회 부임 2년차를 맞은 김홍식(55) 상임 부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직원들과 호흡을 맞추고 건강을 다지겠다는 생

각이다. 한국골프협회 회장과 동시대 체육학과 교수로 재직하는 등 체육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는 김홍식 상임 부회장은 “별도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월드컵경기장, 무등경기장, 영주체육시설을 틀나는 대로 도보로 이동하고 있다. 걸으면서 시설물을 세심하게 점검도 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서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며 “3·1절 마라톤을 계기로 건강에 더욱 신경 쓰면서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건강한 광주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대회 참가 소감을 밝혔다. 엘리트 선수 출신으로 육상을 했던 박재현(54) 사무처장도 도보로 체육시설물을 점검하면서 체력단련을 하고 있다.

‘도보 점검’에 동참하고 있는 오종근(59) 체육시설관리부장은 휴일에는 등산으로 체력을 키우는 등 마라톤 대회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조선대에서 육상 선수생활을 한 문부홍(46) 운영부장은 3월1일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시체육회는 “이번 대회를 개인의 마라톤 실력과 건강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무엇보다 체육회 직원들이 앞장서서 생활 속 건강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대회 참가자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달릴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하겠다”며 “기록보다는 초보자들이 건강하게 뛸 수 있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잠자는 호랑이 공격 본능을 깨워라”

KIA 타이거즈 오키나와 전훈... 타격 프로젝트 가동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20일 애리조나에서 전원 철수했다. 8명의 선수를 탈락시킨 KIA는 22일부터 오키나와에서 2차 해외전지훈련에 돌입한다. 숨죽이고 있는 방망이를 깨우기 위한 프로젝트도 계속된다. 이순철 수석코치는 “애리조나 캠프에서 타자들에게 공격성을 강조했다. 유리한 볼 카운트에서는 적극적으로 스윙을 하고 승부를 하라는 주문을 많이 했다”며 “승관이라는 것이 쉽게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서 아직

은 완벽하지는 않다. 시간과 인내심을 가지고 타선의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22일부터 시작되는 ‘오키나와 리그’가 공격야구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KIA는 22일 주니치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오키나와에서 삼성·한화등과 총 12차례의 연습경기를 치른다. KIA는 연습경기를 통해서 타선의 공격본능을 깨우고 라인업의 큰 틀을 그리겠다는 계획이다. 이 수석코치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선



수들이 의지를 가지고 잘 따라왔지만 경기를 통해서 얼마나 응용력을 발휘하느냐가 앞으로 중요하다”며 “공격성·자신감이 옛날 타이거즈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타석

에서 공격적으로 하면서 자신감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얘기를 했다. 앞으로도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강조하면서 꾸준한 발전을 주문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1차 전지훈련에서 이 수석코치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긴 선수는 거포 나지완이다. 이 수석코치는 “외부에서 보던 거친 이미지는 다른 면이 있었다. 스마트하고, 타격

◀ 화끈한 공격 야구를 예고한 KIA가 미국 애리조나에 이어 일본 오키나와로 이동해 화력점화에 나선다.

에 재능이 있다. 지금도 스윙이 거칠기는 하지만 풀어나오는 스윙이 어느 정도 가다듬어졌다”고 나지완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3번 후보로 언급되고 있는 안치홍에 대해서도 확고한 믿음을 보여줬다. 이 수석코치는 “스윙이 빠르고 공을 맞추는 재주를 가진 선수다. 더 이상 특별히 조언을 할 것이 없는 선수다. 부상만 없다면 충분히 자기의 성적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 안치홍과 함께 김선빈·이용규·이범호 등은 다른 조언이 필요없는 선수들이다”고 얘기를 했다. 신인 윤완주와 황정림은 오키나와 리그를 통해서 지켜볼 ‘필수부품 떡잎’으로 꼽았다. 특히 내·외야에서 유틸리티 플레이어로 조련을 받고 있는 윤완주는 승부 근성과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HK Carland featuring car accessories, tires, and Meguiar's product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promotional offers.